

AUTHOR 최덕성

TITLE “개혁”: 열 가지 스펙트럼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6 (December, 1996): 9-25

목사가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 성도들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교단 지도자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교단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개혁주의는 신앙일치의 삶을 강조한다. 신학교는 머리만 크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팔과 다리를 굽게 만드는 곳이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같이 실천이 없는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 새로 부임한 목사를 교인들이 첫해는 설교를 듣고 따르고 두번째 해는 그의 인격을 보고 따르고 세번째 해부터는 목사의 언행일치의 삶을 보고 따른다고 한다. 중심에서 깊은 존경의 대상자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고려신학대학원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끄시고 도와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수들은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순결을 견비한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이 학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참된 교역자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개회사)

## “개혁”: 열 가지 스펙트럼

최 덕 성

### I

한국장로교회는 초기 수십년 동안 복음전도와 구령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본격적인 신학작업이나 자신의 신학적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일제의 잔혹한 박해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근원을 흔들며 위협했던 새로운 신학사상들이 유입되면서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유일한 신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전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과 신학이라는 학문활동과 성경이해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장로교회가 받은 신앙전통은 성경,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교사들의 이해를 존중해 온 전통이다. 특히 종교개혁기와 그 이후에 발전한 신학적 입장을 존중해 왔다.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통에 따라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며, 성경만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고 고백해 왔다.

서양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 특정 전통은 “Reformed,” 혹은 “Reformiert”란 단어로 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우리말로 옮기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언어와 언어 사이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것은 주로 인도-유럽어 언어의 단조로움과 한국어의 풍요로움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개혁주의 전통을 연구하려면 먼저 “개혁”(Reformed)이라는 단어의 용례들을 분석적 해설 필요가 있다.

이 단어는 약 열 가지의 다양한 우리말로 옮겨질 수 있다. (1) 형용사적인 기능을 가진 분사로 사용될 경우는 “개혁된”을 의미한다. 개악(改惡)된 것이 아니라 고쳐져 새롭게 되었다는 뉘앙스를 가진다. (2) 중세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된 종교를 뜻한다. 즉 개신교를 의미한다. 해방 전후 우리나라의 문헌들에는 “개혁교”(改革教), “개혁종”(改革宗), “개정교”(更正教) 등으로 표기된 바 있다. (3) 개신교 일파로서 루터파, 제세레파, 영국국교회와 구분되는 “개혁파”를 뜻한다. (4) 스위스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개혁파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단”을 지칭한다. 화란개혁교회, 헝가리개혁교회, 미국개혁교회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5) “개혁주의”이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개혁파 혹은 개혁교단이 믿고 신앙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개혁신앙은 단순한 하나의 “주의”(-ism), 즉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스콜라주의적 합리성으로 모두 증명되는 어떤 것도 아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coram Deo)에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소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단이 아니지만 개혁신앙을 신봉하면서 그것의 체계, 신념, 기쁨, 정신, 태도 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표기해 왔고, 받아들여져 왔다.

이 외에도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6) “개혁주의자”를 뜻하기도 하고, (7) “개혁파 전통”을 의미하거나 (8) “개혁주의 신학”을 뜻하

기도 한다. (9) “개혁주의적인 혹은 개혁파적인 어떤 것”을 지칭하며, (10) 간단하게 “개혁”으로 번역되어 “개혁신앙,” “개혁신학”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 II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개혁”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종교개혁의 역사 초기에 교황주의에 반대하는 개신교들을 일컫을 때였다. 기독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새롭게 개혁된 교회가 본래의 신적 질서와 생활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개혁된 교회,” “교정된 교회” “정화된 교회”란 말로 일컬어졌다.<sup>1)</sup> 이 단어들은 점차 나중에 루터파로 알려진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컫는 용어로 자주 사용했다. 1540년에 멜랑톤이 작성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루터를 따르는 교회를 “교정된 교회”로 일컬었다. 한편 프랑스의 아비뇽의 람베르트(Lambert of Avignon)는 그가 교회문에 붙였던 158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조항에서 “잘못된 모든 것은 개혁되어야 한다”<sup>2)</sup>라고 선언했는데, 이 문안이 1526년 함베르그 종교회의의 첫 모임에서 읽혀진 바 있다. 16세기에 출현한 문학작품들도 빈번하게 “개혁된 교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개혁”(Reformed)이란 용어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561년 프랑스의 포와씨회담(Colloquy of Poissy)에서였다. 프랑스 역사상 중대한 위기에 황실에 의해 소집된 이 회의에서 개신교 대변인으로 참석한 테오도르 베자는 화

1) Heinrich Heppe, *Ursprung und Geschichte der Bezeichnungen "Reformirte" und "Lutherische" Kirche* (Gotha: Verlag von Friedrich Andreas Perthes, 1859), 12ff.

2) *Ibid.*, 2.

체교리에 관해 “독일과 그 외 지역의 모든 개혁된 교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sup>3)</sup>고 선언했다. 물론 베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개혁된 종교” 또는 “개혁된 교회”를 언급했다.<sup>4)</sup> 교회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포와씨에서 열린 회담에서였다.<sup>5)</sup>

독일의 하인리히 헤페(Heinrich Heppe)는 “개혁”이라는 명칭의 역사적인 발전을 기술한 바 있는데 미국의 유진 오스터하븐(Eugene Osterhaven)은 이 책의 내용을 간추려 이 용어의 사용과정을 영어로 소개한 바 있다.<sup>6)</sup>

헤페는 테오도르 베자가 지적한 바를 언급하면서 1562년 초에 프랑스 왕 샤를르 6세가 개신교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새 종교,” “새 종교의 목사와 지도자들”로 호칭했고, 이 칙령을 접한 개신교인들은 “1월 칙령의 주요 사항의 집행과 준수에 관한 문제로 소집된 프랑스 목사들과 의원들의 보고 및 회의”에서 그들 스스로를 “개혁된 교회,” “개혁 교회들”이라 명명했다고 했다.<sup>7)</sup>

헤페는 포와씨회담 이후에 형용사 “개혁”이라는 단어가 자주

3) Theodore de Beza, *Histoire Ecclesiastique des Eglises Reformees au Royaume de France*(Lille:Imprimerie de Leleux, Grand Place, 1841), vol. 1, 374

4) Ibid., 126, 133ff., 139, 309, 327.

5) 1561년 9월 26일에 로마교 대변인으로 로마 카톨릭 수도원장이 연설을 하고 이어서 개신교 대표자로서 베자가 연설을 했는데, 이곳에는 황태후 캐더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와 실질적인 군주들이 참석했다.

6) Eugene Osterhaven, “The Name ‘Reformed’” in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171-178, Appendix.

7) Theodore de Beza, 425, 429ff., in M. Eugene Osterhaven, *The Spirit of Reformed Tradition*(Grand Rapids:Eerdmann, 1971), 173참고.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시에 위치해 있던 프랑스 난민교회가 1561년 11월 그 도시의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혁 교회들”<sup>8)</sup>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1562년 7월에 콘디(Condy)의 왕자 브르봉의 루이(Louis of Bourbon)의 편지에도 이 용어가 발견되며,<sup>9)</sup> 칼빈은 1563년 4월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1564년 펠라라 공작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혁된 종교”와 “정당하게 개혁된 교회”<sup>10)</sup>를 언급하고 있다.

그 후 “개혁”이란 용어는 루터파와 쾰빙글리파 모두를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로 발전되어 교황주의자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일컫어 개혁된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1)</sup>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륙의 왕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개혁된 종교”가 자주 언급된다. 루터파 신앙고백서인 협정신조(Form of Concord)는 독일의 루터파 왕자들의 모임에 관한 말을 다음과 같이 삼입시켜 놓고 있다. “존엄하신 여왕 폐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러한 신학자들의 모임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 모임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 반면에 루터파와 쾰빙글리파를 하나로 그리고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개혁된 종교의 원수인 교황주의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베자와 동료들은 캐더린 드 메디치 황태후에게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 나라의 모든 개혁된 교회들과 우리는 외부, 즉 영국, 스코틀랜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폴란

8) Heinrich Heppe, 14.

9) Beza, II, 640.

10) *Corpus Reformatorum,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Baum, Cunitz, and Reuss, (Brunswick, 1863-1900), vol. 47, 691, vol. 48, 232.

11) 엘리자베스 여왕이 1577년에 팔라틴 왕자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다. Heppe, 17.

12) Heppe, 17. Cited in Osterhaven, 173.

드, 스위스와 그리손스(Grisons)의 교회들 보다 적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진술했다. 이 무렵 독일의 왕자들은 중재자들을 파리에 파송해 한 나라안에 개혁된 종교가 공존할 수 없음을 믿도록 하는 자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개혁교인들에게 독일과 다른 많은 지역에서 카톨릭교회와 개혁교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3)</sup>

루터파 신앙고백서인 『협정신조』의 도입 부분은 “우리 개혁교회는 교황주의자들과 다른 타락하고 저주받는 종파와 이교도로부터 분리되었다”<sup>14)</sup>고 진술했다. 독일 내의 멜랑톤계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엄격하게 반대하여 작성된 이 루터파 신조는 자신들의 교회를 “개혁된 교회”, 즉 “개혁교회”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용례가 16세기 말 그리고 17세기 초엽까지는 계속되었다. 독일의 개신교인들은 “개혁”이란 말을 루터파, 혹은 복음주의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칼빈주의를 반대했던 루터파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루터파”로 불리는 것을 반대했다. 자신들의 교회는 새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혁파”라는 이름이 종교개혁에 속하는 비루터파 구성원만을 일컫는 용어가 된 것은 성찬논쟁때였다. 성찬논쟁은 개신교인들을 다시 루터파, 칼빈파, 쾰빙글리파, 개혁파로 구분하게 만들었다. 칼빈파로 비난받던 팔라틴 왕국의 프레드릭 3세는 1563년의 한 편지에서 “루터파는 주의 성찬교리에 관한 말씀의 본문에서 이탈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협정신조』는 칼빈파를 “모든 성찬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유해한 자들”<sup>15)</sup>로 묘사했다.

헤페가 밝힌 대로 팔라틴에서는 1584년 이후부터 스트라스부

13) Heppe, 19.

14) Ibid.

15) Heppe, 16

르크에서는 1598년부터 “루터파”란 용어가 하나의 고백적,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비텐베르그에서는 1592년에서 1599년 사이에 “개혁파”란 이름이 “칼빈파”란 의미로, “루터파”는 협정신조의 추종자들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sup>16)</sup> 1602년 드레스덴에서 출판된 레이제르(Leyser)란 극우 루터파 사람의 “기독교, 교황주의, 칼빈주의파라고 부른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칼빈파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기 보다는 악마에 더 가깝고, 칼빈파를 “개혁파”로 이름지은 것은 잘못이다<sup>17)</sup>고 단언한다. 점차 성례론과 예배에 있어서 칼빈을 따르는 자들과 교회들을 “개혁파”로, 칼빈파적 경향을 반대하는 자들을 “루터파”로 나누어 호칭하게 되었다. 예배의식에 있어서 루터파보다 더욱 철저한 개혁을 주창하는 자들의 교회를 일컫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된 교회”로 일컬었다.

이처럼 “개혁”이란 말이 비루터파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1578년부터였다. 그리고 신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598년부터였다.<sup>18)</sup> 영국에서는 30년 전쟁(1618-1648)이 종료되고 현대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개혁주의”란 개신교를 의미했지만, 독일에서는 우루시누스(Ursinus)가 칼빈주의 신조 중의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주해서를 저술했던 데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출판하면서 그 교제에 reformatarum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때부터 루터파와 구별된 독특한 하나의 개신교 전통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sup>19)</sup>

16) Heppe, 35, 38.

17) Heppe, 40.

18) Heppe, 70, 72-76.

19) “Corpus Doctrinae Christianae ecclesiarum a papatu reformatarum, etc.”

## III

한국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 받아왔다. 영미의 청교도적 배경을 가진 개혁주의 교회들의 선교를 통해 신앙의 틀이 잡혔다. 신학의 조형기(造形期)로부터 한국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중시해 왔다. 비록 이 고백서들은 1960년대 후기에 이르러 공식문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907년에 출범한 한국장로교 독노회시부터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되어왔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 대한 높은 권위, 확신있는 전도의 실천을 중시하는 한국개혁주의 전통은 일찍이 평양신학을 꽃피웠다. 평양신학교의 신학교육은 아래의 문헌에 잘 나타난다.

성경이 강조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표준과 정치에 관한 장로교 형태를 수락하는 역사적 칼빈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장로교인들은 옛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심없이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된 복음의 이야기는 바울을 초자연적 해석과 더불어 선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한국교회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sup>20)</sup>

한국장로교회의 초기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철저한 칼빈주의적 인물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퓨리탄형의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경건생활, 그리고 청교도적 개혁주의 메시지를 가지

20)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U.S.A. Presbyterian Church, June 30-July 3, 1934, 187.

고 교회, 학교, 도시, 촌락에서 말과 글로, 행위와 활동을 통해 전도했다.

복음전도에 심혈을 기울였던 초기 교회는 신학적인 주제나 자신의 신학적, 역사적 뿌리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자신의 신학적,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혁," "개혁주의," "칼빈주의"란 용어는 한국인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보급된지 수십년이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주의 전통과 관련해 처음으로 "개혁"이란 단어가 문헌상 사용된 경우는 1920년 4월에 발간된 『신학지남』의 "만국장로회연합총회"라는 글이다. 부두일 선교사가 번역 게재한 이 글은 1877년 에딘브라에서 모인 제 1차 장로교연합총회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다수의 "개혁교인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sup>21)</sup> 개신교를 "개정교회"(更正教會)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유럽 대륙 여러나라의 개혁교도들을 영미의 장로교도들과 함께 칼빈의 도리를 따르는 "장로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1924년에 김인영 씨는 『신학세계』에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sup>22)</sup>이란 글을 발표함으로써 칼빈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한글 논문을 실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감리교계 잡지가 장로교계 잡지보다 칼빈에 관한 글을 먼저 실었다. 장로교계 신학지인 『신학지남』은 193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칼빈신학 등을 다루었다.

한국인으로서 "개혁"을 문헌상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남궁혁 박사였다. 1934년 7월 『신학지남』에 실은 "칼빈신학과 현대생활"이란 논문에서 "칼빈주의"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으나 그것은 개신교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는 벤자민

21) 3.1(1920, 4), 432.

22) (1924, 9): 40-44.

워필드의 말을 빌려 "칼빈주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칼빈 개인의 교의(敎義), (2) 좀더 광의로 역사상으로 본 루터의 개혁신교회와 구분한 반향교회(Protestant Church)에서 공인한 교의 체계 또는 그보다도 종교개혁시대 이래로 각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칼빈신조에 대한 장엄한 과학적 해석으로서 칼빈교회의 총칭, (3) 일층 광의적으로 요한 칼빈의 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시대 이후 각 반향교회 영역에 있어 신학, 도덕, 철학, 사회, 정치 각 방면에 펼쳐 인류사상계에 일 대표상(一大表狀)을 줄 뿐 아니라 인류 생활사상에 있어 일반 문화 민족의 사회상 질서와 각 국가의 정체조직에 미친 대표상이다.<sup>23)</sup>

『신학지남』의 동 호는 칼빈연구 특집을 내면서 송창근의 "요한 칼빈의 일생," 박형룡의 "칼빈의 예정론," 채필근의 "칼빈의 교회관과 교회정책," 이늘서의 "칼빈신학과 그 감화," 나부열의 "성경주석가로 본 칼빈," 곽안련의 "강단의 칼빈" 등을 게재했다. 박형룡의 글은 "칼빈주의 5대 요점"과 함께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sup>24)</sup> 우리나라에서 "칼빈주의"란 말을 문헌상 최초로 쓴 것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여기에 실린 남궁 혁과 박형룡의 글이다. 지금까지 함일톤(Hamilton)선교사가 1937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sup>25)</sup> 그 보다 몇 년 앞서 사용되었다.

『활천』지는 1937년 7월에 박현명 씨의 글 "개혁전(전)의 개혁

23) 16.4(1934. 7), 2.

24) 16.4(1934. 7): 28-37, 특히 28.

25) 정성구, "한국교회와 칼빈연구," 『신학지남』 57.1 (1990), 18.

자들: 위크립과 핫쓰"<sup>26)</sup>을 실었다. 편하설(D.C.F. Bernheisel) 선교사는 같은 해 11월에 기고한 『신학지남』의 "교황제도의 분해"라는 글에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개혁자 사보나롤라"를 언급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셔서 그같은 혼란 중에서 종교를 개혁케 하시고 오늘 우리로 정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케 한 것은 감사"<sup>27)</sup>한다고 진술했다. 이 무렵의 "개혁"은 주로 종교개혁을 의미했다.

"개혁과," "개혁교회"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38년 경 부터였다. 『신학지남』에 번역 게재된 레처(L. A. Loetscher)의 『장로교회의 약사』(1938년 10월호부터 1940년 3월호까지)는 "개혁교회," "개혁종교," "개혁과," "개혁신앙," "개혁교도" 등을 언급한다<sup>28)</sup>. 그는 "개혁과 혹은 장로파는 존 칼빈이 지도한 것이다"<sup>29)</sup>라는 말과 더불어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을 『장로교회』란 제목 아래 일괄적으로 거론했다.

1938년 박형룡은 로레인 뵈트너(L. Boettner)의 『개혁주의 예정론』(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우리말로 번역 출간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칼빈주의 예정론』라고 달았다. 서문에서 "개혁주의 신앙 혹은 칼빈주의라고 칭하는 신학사상 체계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윤리적인 기독교의 해석이다"<sup>30)</sup>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26) (1937. 7): 32-36.

27) 19.1(1937. 11), 26, 28.

28) 20.6(1938. 11), 34, 35, 37; 20.5(1938. 10), 46-47; 21.2(1939. 3), 23, 26, 27; 21.3(1939. 5), 22등 참조

29) 20.6(1938. 11), 35.

30) (경성: 예장 종교교육부, 1938), 1.

박형룡은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개혁주의 신앙 혹은 칼빈주의는 교회적으로 가장 우세를 가진 신학사상 체계이다. 이것은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신조 혹은 신학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구미에 있는 장로주의 및 개혁주의 교회 제 지파의 공식의 신앙규준은 전혀 칼빈주의적이며, 침례교회와 회중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들의 저서도 대체로 칼빈주의적이다. (p. 1)

1939년 1월호 『신학지남』은 “칼빈의 사상”이란 주간(박형룡)의 글에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칼빈도 웨슬레도 아니며 헛필드나 조지 팩스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더불어 “개혁교회,” “초(超)개혁파”<sup>31)</sup>란 용어들을 사용했다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구례인 박사는 1940년 1월호 『신학지남』에서 “개혁파”를 언급하고 있다.<sup>32)</sup>

일제의 식민지화의 일부로 시행된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국장로교회는 끝내 일본기독교단에 통합되어 이 땅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적이 있다. 광복과 더불어 장로교 복구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 재건을 준비한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신앙을 사수한다. 우리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전적으로 채용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교수는 1949년 4월에 『파수군』에 “개혁교파의 교회론 소고”란 글을 게재했다.<sup>33)</sup> 이 잡지는 박윤선 게시록 주석 출간을 알리면서 “개혁교의 성경해석원리”를 언급하고

31) 21.1(1939. 1), 2-3.

32) “에밀 부르너 신학에 대한 평론”, 『신학지남』 22.1(1940.1), 10.

33) 『파수군』 2 (1949. 4): 11-14.

있다.<sup>34)</sup> 그러나 같은 책에서 황철도 목사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란 글에서 “이 계시신학을 믿는 우리 프로테스탄트(개혁교)의 교인의 입장으로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sup>35)</sup> 신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개혁운동인 해방 후의 고신운동, 즉 교회재건운동, 참회운동, 진리운동의 본거지인 고려신학교와 경남노회를 제거하며, 장로교단을 분열시키려는 총회파의 술책에 항거하면서 교회분열을 적극 반대했던 경남노회는 “호소와 공약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상회의 잘못을 알고 맹종하는 것보다 교정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그 회에 속한 충실한 지체(지교회원)의 취할 바 정당한 태도이며 이것이 개정교회(신교)가 설립된 근본 정신이 됨으로써입니다. 개정교회(장로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원어는 즉 항의라는 말인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sup>36)</sup>라고 진술한다.

이처럼 이 무렵에는 “개혁”을 종교개혁으로 이해하여 개신교를 일컫거나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개혁주의”(Reformed)란 용어가 개혁주의 전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신앙고백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공식문헌에 사용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의 “출범 선포문”(1952)에서였다. “개혁주의”를 3회 언급하면서 신학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중세기 암흑 시대를 광명으로 변하게 하며 진리를 매몰하던 교권주의자들을 물리치고 부패하여 세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34) 『파수군』 2 (1949. 4): 45.

35) 2 (1949. 4): 26 (26-30).

36) 1949. 9. 고신책임자 주남선, 한상동, 박윤선, 한명동, 손양원, 송상석.



교회를 바로잡아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운 선지와 교부들이며 무수한 성도의 흘린 피가 오늘의 진리 노선을 계승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 칼빈 선생께서도 그 시대의 암흑면을 깨치고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개혁주의(복음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곧 우리 장로교회파의 창시자였습니다.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칼빈 선생의 개혁주의로 이루어진 교파이니 만큼 우리들은 이 개혁주의 진리노선을 떠나서는 장로파 교회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신앙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sup>37)</sup>

이 선포문은 1946년 9월에 세워진 고려신학교의 설립목적과 취지와 일치한다. 이 학교는 한국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신봉해온 개혁주의적인 신앙, 즉 “정통신학”을 회복하기 위해 세워졌다.

한국교회 내에는 일찍부터 개혁주의를 칼빈주의와 동일시하는 풍토가 있어 왔다. 1945년 『신학지남』에 게재된 명신홍의 “칼빈주의의 근본정신”은 “칼빈주의란...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체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38)</sup> 총신대학 교수회는 “총신의 신학적 입장”(1989년 8월)<sup>39)</sup>에서 개혁주의 신학전통에 대한 고수를 선언했다. “우리 총신교수 일동은 전국교회앞에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복음주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총신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언급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흥미롭게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실제적 특징인

37) 『대한예수교장로회(교신) 제 1회 총회록』, 12.

38) 23, 1(1954. 2):21(21-31).

39) 『현대사조』(1979. 11), 199-204.

적극적 문화관과 사회봉사를 강조한다”<sup>40)</sup>고 진술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박형룡의 입장파도 일맥상통한다. 박형룡은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전에 개혁주의란 말을 자주 쓰지 않았으며, “옛날에도 개혁주의를 모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드물게 썼고 혹은 장로교회란 말에 그것을 포함시킨 것 뿐... 이므로 이제 개혁주의를 새로이 개발하거나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확고히 보수하면서 그것의 해설에 필요한 보완을 행할 것 뿐이다”<sup>41)</sup>라고 말했다.

개혁주의와 칼빈주의가 동일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만은 아니다<sup>42)</sup>. 이 둘 사이에는 동일성과 함께 상이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칼빈주의는 17세기 표현이며, 개혁주의는 쾰링글리과 칼빈등의 스위스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파 전통을 일컫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다.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성을 간과해 버릴 수 있다. 개혁주의 전통 내에는 다양한 신학들이 발전해 왔다. 예컨대, 17세기 칼빈주의, 화란 개혁주의 신학, 구프린스톤신학,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신신학, 그리고 폭넓게로는 신정통주의 신학등이 있다.<sup>43)</sup>

40) 상계서, 204. “흥미롭다”는 필자의 진술은 총신을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과는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41)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1964. 9), 박형룡저작전집: 『신학논문 하권』, 98-99.

42)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Ann Arbor, Michigan: Servant Books), 3.

43) David F.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Grand Rapids: Eerdmans, 1985).

## 참고문헌

- Beza, Theodore de. *Histoire Ecclesiastique des Eglises Reformees au Royaume de France*. Vol. 1. Lille: Imprimerie de Leleux, Grand Place, 1841.
- Corpus Reformatorum,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Baum, Cunitz, and Reuss. Brunswik. 1863-1900. vol. 47 and 48.
- Heppe Heinrich. *Ursprung und Geschichte der Bezeichnungen "Reformirte" und "Lutherische" Kirche* Gotha: Verlag von Friedrich Andreas Perthes, 1859.
- Hesselink, John.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Ann Arbor, Michigan: Servant Books, 1983.
- Loetscher, L.A. "장로교회 약사" 『신학지남』20.6(1938, 11); 20.5(1938, 10); 21.2(1939, 3); 21.3(1939, 5).
- Osterhaven, Eugene. "The Name 'Reformed'" in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171-178, Appendix.
-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U.S.A. Presbyterian Church*, June. 30-July 3. 1934, 187.
- Wells, David F.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85.
- 구례인, "에밀 부르너 신학에 대한 평론," 『신학지남』 22.1(1940, 1): 10-178.
- 김인영,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신학세계』 (1924, 9): 40-44.
- 남궁혁, "칼빈신학과 현대생활," 『신학지남』 16. 4(1934, 7): 2-13.
- 명신홍, "칼빈주의의 근본정신," 『신학지남』 23. 1(1954, 2): 21-31.

- 박윤선, "개혁교파의 교회론 소고," 『파수군』 2 (1949, 4): 11-14.
- 박현명, "개혁전(전)의 개혁자들: 위크립과 핫쓰," 『활천』(1937, 7): 32-36.
- 박형룡, "칼빈의 예정론," 『신학지남』16. 4(1934, 7): 28-37.
- 박형룡,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1964, 9), 박형룡저작전집: 『신학논문하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뵈트너, 로레인 『칼빈주의 예정론』 박형룡 역(*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Boettner*), 경성: 예장종교교육부, 1938.
- 부두일, "단국장로회연합회," 『신학지남』 3. 1(1920, 4): 55-58.
- "선포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1회 총회록』.
- 정성구, "한국교회와 칼빈연구" 『신학지남』 57. 1(1990) "총신의 신학적 입장", 『현대사조』(1979, 11), 199-204.
- 편하설, "교황제도의 분해," 『신학지남』 19.1 (1937, 11): 23-35.
- 황철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파수군』 2 (1949, 4): 26-30.
- "호소와 공약선언", 고신책임자 주남선, 한상동, 박윤선, 한명동, 손양원, 송상석, 1949. 9. 필자의 특별수집본.